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시원'에의 향수

윤대녕의 《옛날 영화를 보러갔다》와 비틀즈의 〈우주를 가로질러〉

김연수 | 소설가

1993년 겨울의 일이다. 12월로 막 접어드는 어느 날 아침, 한 사내는 신문에서 우연히 되새때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됐다. 기사는 시베리아 철새인 되새때가 30여년만에 우리나라에 다시 날아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이 사내에게는 몇 가지 기이한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환청 같은 새때 소리의 정체

그 첫번째 기이한 일은 사내가 한 카페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서서 겨울비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일어났다. 정전이라도 된 듯 거리가 금세 어둠에 휩싸여버린 오후 다섯시. 사내가 안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있는 사이, 어디선가 갑자기 새때 소리가 들려왔다. 되새때 날아가는 소리인가?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새때는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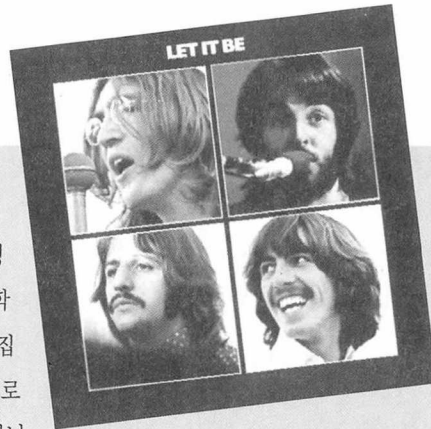
1994년 11월 28일, 프랑스 드골공항을 이륙한 비행기 안이다. 비행기가 유럽권을 벗어날 무렵, 한 노교수가 가방에서 책을 한권 꺼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책장을 펼치자 갑자기 새때 나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겠는가.” 주위를 돌아봐도 새때가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카페 앞에서 새때 날아가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윤대녕의 첫번째 장편소설 《옛날 영화를 보러갔다》(중앙M&B)의 주인공이며, 비행기 안에서 새때 날아가는 소리를 듣는 노교수는 파리에서 열린 한국문학 번역세미나에 참석하고 귀국하던 문학평론가 김윤식 교수다. 물론 그때 김교수가 펼친 책은 윤대녕의 소설이었다. 그렇다면 이 환각인 듯, 환각이 아닌 듯한 새때 소리는 과연 무엇일까?

윤대녕의 장편소설 《옛날 영화를 보러갔다》는 1990년대 문학사의 첫페이지를 장식할 단편집 《은어남시통신》의 주제를 그대로 장편으로 옮긴 작품이다. 《은어남시통신》에서도 깊이 있게 다뤘던 '시원로의 회귀'라는 주제가 되풀이된다. 이 주제는 결말 부분에 나오는 누에 사남에 그 초점이 맞춰진다. 그렇지만 주인공이 번역하는 책 《시간의 화살》, 언젠가 가본 듯한 서울의 뒷골목과 언젠가 만났던 것 같은 사람 등 다양한 소재들이 이 주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도입부에서 우리나라를 찾은 시베리아 되새때 얘기를 한 까닭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때 날아가는 소리는 무엇일까? 그 새때 소리는 환각일까, 아니면 정말 들려오는 소리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정답이다. 《옛날 영화를 보러갔다》의 주인공이 담배를 꺼내물다가 듣는 노래는 비틀즈의 〈우주를 가로질러〉(Across The Universe)다. 1970년 5월 8일 영국에서 발매된 비틀즈의 명반 《렛잇비》(Let It Be)에 수록된 곡으로, 단순한 록가수에서 사상가로 발전해나가는 존 레논의 변모를 한껏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이 앨범을 사서 들으면 새때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이 새때 소리는 환각이랄 수 있다. 그런데 비틀즈가 해산하고 아주 오래 뒤인 1988년에 나온 앨범 《패스트 마스터즈》(Past Masters)에 실린 〈우주를 가로질러〉를 들어보면 새때 날아가는 소리가 효과음으로 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노래에는 두 개의 버전이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이 새때 소리는 실제 들린다고 할 수 있다.



〈우주를 가로질러〉가 수록된 비틀즈의 명반 《렛잇비》.

“부서진 빛의 환영이 내 앞에서 춤춘다. 마치 우주를 가로질러 나를 끊임없이 부르는 수천의 눈동자들처럼. 생각은 우체통 안으로 들어온 바람처럼 이리저리 제멋대로 흘러간다. 그 생각들은 맹목적으로 비틀대면서도 우주를 가로질러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아간다. 자이 구루 데바 옴. 그 무엇도 나를 바꿀 수 없어.”(〈우주를 가로질러〉)

오직 사랑만이 존재하는 세계

새때들은 그 무엇도 나를 바꿀 수 없는 우주 저편의 세계, 즉 '자이 구루 데바 옴'의 세계. 존 레논이 빠져들었던 상상 속의 세계다. 노래 〈이미진〉(Imagine)에서 말했다시피 소유도, 질투도 없이 오직 사랑만이 존재하는 세계, 우리가 오래 전에 떠난 세계,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세계다.

처음 이 소설이 출간됐을 때, 도입부의 효과음을 두고 작가와 평론가가 입씨름을 한 적이 있었다. 평론가가 들은 노래에는 새때 나는 소리가 없었던 까닭이다. 서로 다른 노래를 들은 셈이지만, '과연!' 이라고 무릎을 친 적이 있다. 그 새때 나는 소리는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소설가라면 설사 듣지 않았더라도 들었다고 강변해야 하고, 평론가라면 그런 소리는 없다고 말해야만 하기 때문이다.●